



뉴스 & 전광판

* 2011년 2월 15일 기준

GS칼텍스배 16강 모두 확정

GS칼텍스배 16강이 모두 결정되고 8강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다.

2월 9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17기 GS칼텍스배 16강전에서 이세돌 九단이 한종진 八단을 165수 만에 흑불계로 누르고 두 번째로 8강에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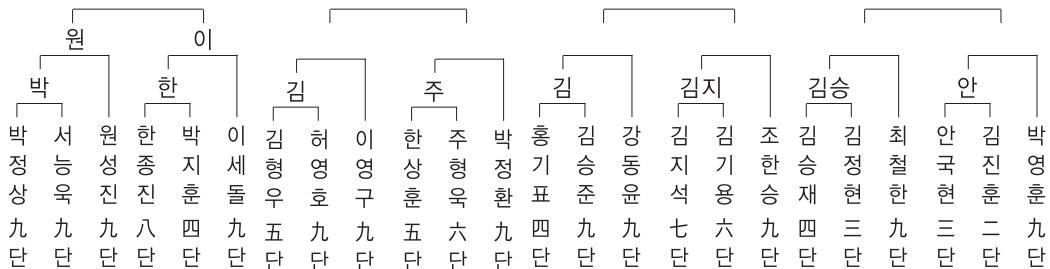
하루전 벌어진 8강전 첫대국에서는 원성진 九단이 박정상 九단을 꺾고 가장 먼저 8강행을 결정지었다.

이번 대국 전까지 맥심배, 원익배, KBS바둑왕전 등 3개 기전



에서 연속 탈락하며 난조를 보였던 이세돌 九단은 최근 9연승 등 제2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는 한종진 八단을 꺾으면서 재도약을 노리게 됐다. 16강의 다음 대국은 2월 22일 이영구 九단 대 김형우 五단의 대결로 이어진다.

올해, 명인전과 더불어 국내 3대 기전 중 하나인 GS칼텍스배의 우승상금은 7000만원이며, 전기 대회에서는 박정환 九단이 박영훈 九단을 3-0으로 누르고 대회 첫우승을 달성했었다.





바둑nTV초청 2012 돌풍대결

2008·2009년 입단팀 1·2위로 결승 진출

형만한 이우 없다는 말처럼 선배팀이 후배팀을 앞질렀다.

2월 10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바둑nTV 초청 2012 돌풍대결'에서 2008년 입단 팀이 2010년 입단 팀을 3-2로 꺾고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한 2008년 입단 팀은 3연승을 올리며 1위로 결승에 진출했고 2승 1패를 기록한 2009년 입단 팀이 2위로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2010년 입단 팀과 2011년 입단 팀은 각 2패씩을 기록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결승전에서는 본선 2위로 결승에 오른 2009년 입단 팀이 결승전 오더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 까닭에 본선 1위를 기록한 2008년 입단 팀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입단 1~4년차 신인들의 잔치 '바둑nTV초청 2012 돌풍대결'은 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팀을 구성해 4개 팀 풀리그로 본선을 펼친다. 1·2국은 개인전으로 20초 초읽기 5회, 3국은 혼성페어전으로 30초 초읽기 3회로 둔다. 4·5국은 각 20분 타임아웃제이며 5국은 여자 개인전으로 펼쳐진다. 리그 순위는 팀 승수로 매기고 동률시 개인승수 합으로 따진다.

본선 1, 2위 팀이 5판3승제로 우승팀을 가리는 결승전은 3월 19~20일에 펼쳐지며 우승상금은 1200만원이다.

■각 팀 선수 명단

| | |
|------------|------------------------------------|
| 2008년 입단 팀 | 한웅규 四단(주장), 이호범 三단, 황진형 初단, 김미리 二단 |
| 2009년 입단 팀 | 안국현 三단(주장), 김기원 三단, 허 진 二단, 김혜림 初단 |
| 2010년 입단 팀 | 나 현 初단(주장), 강승민 二단, 이지현 二단, 최 정 二단 |
| 2011년 입단 팀 | 이동훈 初단(주장), 최홍윤 初단, 박민규 初단, 김채영 初단 |

■리그전 최종 결과

| | |
|-------------------|------------------------|
| 2008년도 입단팀(3승) | 11년(승), 09년(승), 10년(승) |
| 2009년도 입단팀(2승 1패) | 10년(승), 11년(승), 08년(패) |
| 2010년도 입단팀(2패) | 09년(패), 08년(패) |
| 2011년도 입단팀(2패) | 08년(패), 09년(패) |



조혜연,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 출간

조혜연 九단이 수필집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창작사활출판사)를 내놓았다.

조九단의 26년 인생살이를 고스란히 담아낸 첫 수필집인 「프로기사 캠퍼스를 걷다」는 루이아이웨이 九단과의 일화를 중심으로 동료기사와 대학생활의 에피소드는 물론 평소 관심을 가졌던 고전음악, 외국어, 종교, 영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단상을 86개 소단락으로 구성했다.

이 책을 출판한 창작사활출판사는 조九단의 어머니인 황연숙 씨가 발행인인 가족 출판사다. 앞서 「창작사활 1, 2」를 발행했던 출판사의 내부 사정으로 완성된 「창작사활 3」의 출판이 어려워지자 직접 출판사를 차렸다고. 이번 수필집 발간은 「창작사활 3, 4, 5」에 이은 네 번째 단행본 출간이다.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조혜연 九단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바둑 단체전 금메달리스트로 여류국수전 우승 두 차례, 여류 명인전 우승 한 차례 등 우승 3회, 흥장배 세 계여자바둑선수권 준우승 등 준우승 14회를 차지한 바 있는 정상급 여자기사다.



출판사 : 창작사활출판사, 292쪽
정가 : 10000원



한국 바둑설화를 문화콘텐츠로 활용? 강나연, 박사논문 통해 방안 탐구

바둑 프로그램 진행자로 친숙한 강나연 아마6단이 ‘한국 바둑설화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게 됐다.

“한국 바둑설화를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의 한 방안으로 활용하려고 논문집필에 착수했다”는 강나연 씨는 “한국 바둑설화의 신비롭고 흥미로운 내용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면 초보자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바둑을 친근하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녀는 바둑설화를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고안하면 바둑계의 새로운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바둑설화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제시해 이채를 끄었다.

권갑용 바둑도장에서 바둑을 배운 강나연 아마6단은 여자연구생 출신으로 명지대 바둑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바둑학과 강사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바둑TV와 K바둑에서 진행자로 활약 중이며 바둑영화도 기획하는 등 다재다능한 재주를 뽐내고 있는 재원이다.

제4기 명지대 글로벌 바둑최고위(GBC) 과정 모집

교육과정 : 글로벌최고위 바둑 & 문화예술 통섭과정

모집인원 : 50명内外

대상 : 기업인, 관료, 전문가, 예술인, 바둑인 및 바둑팬

수강 : 2012년 3월 셋째 주부터 16주(목요일 저녁 6시 20분 식사, 7시~9시 30분)

장소 : 세종원(서울 서초동), 입학식(호텔), 수료식(명지대학교)

원서접수 : 2012년 2월 24일까지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홈페이지 www.ceobaduk.com,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ceobaduk>

전형방법 : 원서접수 후 상담. 정원 모집되면 조기 마감함

접수방법 : 팩스(031-330-6212), 이메일 shje02@hanmail.net, sue4345@naver.com

문의 : 글로벌최고위과정 담당자 TEL: 010-4118-0202



제3회 BASSO배 직장인 바둑대회

SG충남방적 첫 출전에 우승까지!

신생팀인 SG충남방적이 직장인 바둑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2월 11일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3회 BASSO배 직장인 바둑대회' 결승전에서 SG충남방적이 KT를 2-1로 꺾고 대회 첫 출전에 우승까지 차지하는 기쁨을 누렸다.

우승을 다퉈 SG충남방적과 KT는 개막 전까지만 해도 우승후보로는 꼽히지 못했던 팀이다. 하지만 KT는 준결승에서 우승후보 0순위였던 포스코를 꺾었고, SG충남방적은 16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판도 패하지 않고 모두 2-0 완봉으로 결승에 진출하는 고력을 선보였다.

결승전에서는 SG충남방적이 1국을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지만 곧이어 2국의 폐어대결에서 KT가 승리하며 추격에 성공했다. 마지막 승부판인 3국에서 SG충남방적의 김준상 선수가 KT의 박정규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우승컵은 SG충남방적에게 돌아갔다.

(주) SG세계물산이 후원하는 '제3회 BASSO배 직장인 바둑대회'는 16개 기업이 참가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우승상금은 1000만원.



제26회 의사회·치과의사회 친선 바둑대회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나현)와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정철민)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치과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26회 의사회·치과의사회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금년으로 26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양 의사회가 상호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매년 열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1차전(8승 2패)과 2차전(6승 1무 4패)을 모두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승리하면서 종합 성적 14승 1무 6패로 우승트로피를 차지했으며 역대 종합전적에서도 13승 1무 12패로 근소하게 앞서게 됐다.

한편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에서는 올해로 임기가 만기(2012.03.31)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나현 회장에게 바둑판 세트를 기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한철균 7단이 지도사범으로 참석했으며 아마강자인 명지대 바둑학과 여학생 2명이 참석해 바둑동호회원들과 지도기를 가졌다.

■대회 출전 선수 명단

| | |
|------------|--|
| 서울특별시의사회 | 이동희, 조현호, 조계근, 윤동환, 문민주, 반재용, 염승희, 고광만, 심평수, 박길홍, 강태경, 한부현 |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신성호, 이강운, 이선우, 임동우, 임명규, 임용준, 서철, 김종화, 이정윤, 한명도, 조상연 |

